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 비교 고찰 - 배재, 경신, 대성,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 -

강 영 택***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정립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설립된 기독교학교들 가운데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두 학교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운 두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네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배재, 경신, 대성, 오산학교에서 가르친 신앙은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부분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앙을 사회와 민족에 대한 봉사과 헌신을 수반하는 것으로 배웠다. 학교에서 신앙교육은 성경과목이나 예배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도 학생회 활동과 같은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도 일어났다. 특히 신앙심이 투철한 교원들과 학생들의 만남을 통해 신앙이 학생들에게 전수되었다. 이들 기독교학교들 간에 차이점도 있다.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학교인 배재학교와 경신학교는 신앙교육을 가장 중시하면서 더불어 민주주의 정신을 지닌 교양인 양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신앙을 토대로 한 민족교육을 강조하여 민족주의 정신을 중요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을 비교 고찰한 것을 토대로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재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들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배재 학교, 경신학교, 대성 학교, 오산 학교

* 이 논문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LINC)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임.

** 본 논문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2011년 학술대회(2011.10.21, 송실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12년 1월 31일 접수, 3월 10일 최종수정, 3월 22일 게재확정

I. 서론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기독교학교의 설립동기인 신앙교육이 점차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협소하게 되어 신앙교육이 종교적 영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기독교학교의 차별성은 학교에서 가끔씩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의해서만 확인될 따름이다. 이는 과거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보여주었던 신앙과 민족정신이 통합된 신앙교육의 총체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우리사회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사회적 공헌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한 사회적 인정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학교들이 오늘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데는 어려운 외부적 여건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고교평준화 제도로 인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의 제약이나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규제와 입시 교육이 점차 강화되고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교학교들이 신앙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신앙을 삶의 총체적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종교적 영역의 문제로 이원화시키는 경향이 강한 한국교회의 영향이 기독교학교에 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외부적 상황에 대해 기독교학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시대에 부합하는 신앙교육을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일부의 기독교학교관계자들이 기독교학교교육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기독교학교협의회, 2007; 2009), 법적 제도적 규제 가운데서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강영택, 2011; 박상진, 2007; 손원영, 2010).

이러한 시점에서 기독교학교가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앙인격을 소유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기독교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공교육적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면에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하여 초기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우리는 국운이 위태로웠던 근대초기에 우리민족을 지키고 우리사회가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데 선구에 섰던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학교폐쇄의 위협 속에서도 기독교학교들은 학교의 본질이었던 신앙교육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강구하였다. 그러므로 한말 기독교학교들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어떤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으로 개교하였으며, 신앙교육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었는지, 일제 강점 하에서 학교가 직면한 내외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설립된 초기 기독교학교들 가운데 네 개의 대표적인 학교들을 선정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먼저 살펴볼 학교들은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학교들인 배재학교와 경신학교이다.¹⁾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지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당시 최고의 사학으로 평가받던 대성학교와 오산학교이다. 배재학교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 G. Appenzeller)에 의해 1885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학교이고, 경신학교는 그 이듬해인 1886년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 G. Underwood)에 의해 설립된 학교이다.²⁾ 감리교와 장로교라는 교단의 차이는 일제하에서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908년 도산 안창호에 의해 설립된 대성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1913년 폐교가 되었고,³⁾ 1907년 남강 이승훈에 의해 설립된 오산학교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배재, 경신, 대성, 오산학교는 한국근현대(교육)사 및 한국교회사 연구에서 종종 언

1) 이화학당 역시 경신학교와 같은 해인 1886년 개교하였지만 배재학당과 같이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경신학교의 개교연도에 대해서는 경신학교의 역사책인 『경신사: 1885~1991』에서 언더우드가 교아들을 데리고 영어를 가르친 1885년을 개교연도로 잡고 있으나, 손인수(1971)와 한규원(2003) 등 교육사가들은 언더우드학당의 시작해인 1886년을 개교연도로 잡고 있다.

3) 대성학교의 설립연도에 대해서는 1907년 설과 1908년 설이 있다. 졸업생 김윤식의 글에서 1907년 학교개교의 내용이 나오고, 손인수(1971)는 이를 근거로 학교의 설립연도를 1907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15일자 신문에 학생 모집의 광고가 게재되었고, 동신문 1908년 10월 2일자 논설에 학교의 개교를 축하하는 글이 실려있는 것을 보면 1908년을 개교한 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린(1986)을 참조.

급되는 한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이들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을 비교 고찰한 연구는 찾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오늘날 기독교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 학교들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 기독교 학교들의 신앙교육에서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는 본 연구가 밝혀야 하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그 학교들에서 발견되는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다양성과 그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신앙교육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네 개의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것이다. 당시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은 일반 교과교육과 분리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모든 학교교육활동에 신앙교육이 스며들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성경교육, 예배 등과 같이 기독교 종교교육으로 분류되는 교육활동을 먼저 고찰하고, 나아가 신앙교육을 위해 전체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기독교학교들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 둘째, 각 기독교학교들이 신앙교육을 위해 교과과정을 어떻게 편성, 운영하였나?
- 셋째, 각 기독교학교들의 교과 외 교육활동에서 신앙교육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 넷째, 각 기독교학교들이 신앙교육과 관련하여 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였나?
- 다섯째, 기독교학교들의 신앙교육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II.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배경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의 설립은 당시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⁴⁾을 토대로 문호개방을 통한 근대화 정책을 추구하던 조선 정부의 입장과 조선에 대한 선교의지가 있던

4) 동도서기론은 성리학의 주기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양의 도(道) 혹은 교(教)는 사악한 것이라도 그와 구분되는 서구의 문물과 그 문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재예(才藝)에 한하여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논리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류방란, 2000).

미국 선교사들의 목적의식이 부합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선교사들에게 공개적인 포교활동을 금하는 대신 교육과 의료부분에서의 활동은 허용하고 지원을 하였다. 그래서 1885년 아펜젤러에 의해 첫 기독교학교인 배재학당이 개교하였고, 이듬해 1886년 언더우드에 의해 언더우드학당이, 스크랜턴(M. F. Scranton)에 의해 이화학당이 문을 열게 되었다. 그 이후 일제의 사학에 대한 탄압이 강화된 1908년까지 선교사들은 기독교학교를 활발하게 설립·운영하였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의 건학정신은 기독교신앙을 토대로 민주주의적, 인문주의적, 자유주의적 교육을 실시하여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데 있었다. 배재학당의 설립자인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우리는 우리학교에서 통역관이나 기술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과 교양인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36). 역시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턴 부인은 이화학당의 교육목적에 설명하는 글에서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만족한다. (중략)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말하였다(손인수, 1971: 39). 이처럼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의 건학정신은 사랑과 봉사와 자유를 표방하는 기독교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이웃과 사회, 나아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건적 사회질서를 개혁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자주, 자립적인 인재를 만드는 것이었다.⁵⁾ 그리고 그 학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 풍속 등을 중요하게 가르쳐서 그 토대 위에서 기독교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학교를 설립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1897년 채택한 교육정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의 교육목적과 유사하나, 교육을 통해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고 교회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특징적이다.

기독교학교 설립과 운영의 기본이념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서 실제생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장차 책임 있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를

5) 기독교학교의 이러한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는 학교 설립 선교사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들 선교사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이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적 야욕의 첨병 역할을 하였거나, 오직 기독교 선교만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류방란, 2000; 정재걸, 1990).

위하여 학교는 학생들의 신앙증진과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이 학생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토착교회를 형성하게 해야 한다. 이 학생들이 장차 농부나 대장장이 되건, 의사나 교사가 되거나 혹은 정부의 관리가 되던 간에 복음을 전하는 능동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숭실대학교 구십년사 편찬위원회, 1987: 60-61; 임회국, 2007: 113에서 재인용).

초창기 기독교학교가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토착교회와 성도들은 기독교학교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1895년 서울의 새문안교회가 영신학당을 세웠고, 평안도 용주군의 신창교회, 정주군의 정주읍교회, 박천군의 남호교회도 각각 사숙(私塾)을 설립하였다. 1898년에는 평양의 장대현교회와 의주군의 남산교회가 사숙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사숙’은 이후 정부의 인가와 함께 정식 ‘학교’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학교의 설립은 1908년까지 매우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설립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장로교파의 경우 1908년에 소학교가 542개, 중학교가 17개나 있었다(임회국, 2007: 112-117). 이러한 수치는 교회수 대비 학교수가 60%나 되는 것으로 당시 교회가 기독교학교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 기독교학교들은 수적으로 당시 학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친 영향력의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1904년 서울의 상동교회가 설립한 청년학원은 교육구국운동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동휘의 보창학교, 이준의 보광학교, 이승훈의 오산학교, 안창호의 대성학교 등 애국구국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이들 학교 배후에는 상동교회와 안창호의 리더십에 의해 형성된 신민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과 우리나라 토착교회가 세운 학교들 뿐 아니라 이들 애국지사들이 세운 학교들도 기독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학교들이 선교적 목적과 더불어 신앙을 토대로 민주·자유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우리나라의 교회와 애국지사들에 의해 설립한 기독교학교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애국계몽활동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는데 강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

III. 초기 기독교학교들의 신앙교육

1. 신앙교육의 일반적인 형태

근대 초기 기독교학교들은 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었건, 한국인에 의해 설립되었건 공통적으로 갖는 교육목적은 신앙을 가진 교양인을 양성하여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를 기르는데 있었다.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친 신앙은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내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사회에 대한 봉사의 정신과 민족운동에의 헌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을 성경교육이나 예배의식과 같은 종교적 활동으로만 제한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한 교과교육과 교과 외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한 뒤 좀 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수업과 예배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성경과목은 대부분 기독교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졌는데 성경수업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신앙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주요수단이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기독교신앙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한규원, 2003: 154).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나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들도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가르쳐졌다. 또한 기독교학교에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실의에 빠진 우리 민족에 용기를 주기도 하였다(손인수, 1971: 81). 학교 예배는 대부분의 기독교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드렸다. 학교에 따라 학생들은 예배에 자율적으로 참석하기도 하고, 혹은 예배참석이 의무화되기도 하였다.

음악시간 역시 신앙을 가르치는 중요한 과목으로 기능했다. 개화기에 한국국민들이 즐겨 불렀던 것이 창가인데, 창가는 찬송가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다. 당시 기독교학교들이 창가를 정식 교과과정으로 채택함으로 찬송가의 보급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은 존스(George Jones)가 1896년에 편찬한 『찬송가』를 음악 시간에 가르쳤다. 당시 기독교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주의 군대여 앞으로 나가자,’ ‘다

깨어라 주의 군대여,’ ‘그리스도 군병가’ 등의 찬송가들은 신앙의 고백으로서 뿐 만 아니라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한규원, 2003: 156-161). 당시 찬가들이 많이 지어져 불리었는데 대개 내용은 자주독립과 충군애국을 노래한 것이 많았다. 1896년 배재학당의 문경호가 지어 『독립신문』에 게재된 다음의 ‘자주독립가’는 민족정신의 고취와 신앙이 결합되어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독립되니 팔괘기가 기운나네/ 팔괘기를 높이다니 세계상에 데일일제
쫓히고 쫓히고 독립문이 쫓히고/ 독립문에 밍세호야 우리나라 힘써보세
사름마다 널리와 우리나라 힘써보세/ 나라돌맘 업스면은 금슈만도 못흐느니
우리나라 위하라면 하느님의 기도하야/ 지혜와 힘을 비러 우리나라 도와보세
(독립신문 1권9호, 1896.8.21: 한규원, 2003: 296에서 재인용)

기독교학교의 학생들은 성경과목과 예배시간을 통해 신앙교육을 직접 배우게 되고 음악시간을 통해 기독교적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체육활동과 실업교육은 기독교학교에서 실시한 중요한 교육활동으로 기독교 정신이 토대가 되었다. 기독교학교에서는 지육, 덕육과 더불어 체육을 강조하여 전인교육을 균형있게 시키려고 하였다. 교과과정에 체육시간을 포함시킬 뿐 아니라 운동회를 통해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동심을 길러 국권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업교육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경시되어왔던 것인데, 기독교정신에서 볼 때 노동 혹은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학교에서는 실업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교과과정에 수공, 가사, 재봉 등의 이름으로 편성하여 가르쳤고, 학교 안에 자조부(自助部)를 설치하거나 공장을 두어 일을 하며 학비를 벌고 취업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한규원, 2003).

일제의 식민통치 시절 사학에 대한 탄압정책에 기독교학교들은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소극적으로 맞섰다. 1915년 3월 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은 사립학교의 설치(2조), 설치인가 사항의 변경(3조), 교과과정(6조 2항), 교과서(9, 10조), 교직원자격(10조 2항) 등을 총독부가 규정한다는 것으로 사학에 대한 대표적인 탄압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법령은 민족애국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다수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하도록 요구하면서 민족교육을 학교에서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가 강하였다. 개정규칙으로 말미암아 총독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국 선교사

교장들이 다수 교체되었고, 일본인 교사들이 대부분 사립학교들에 채용이 되어 한국인 교사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교과과정에서 역사와 지리 교과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민족교육을 못하게 막았고, 성경과목 및 학교행사로서의 종교의식을 금지함으로써 민족교육의 근원적인 힘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강압적 억압 속에 사학들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1910년에 일반 사립학교 1320개, 종교계 사립학교 778개였던 것이 1923년에는 일반학교 376개, 종교학교 273개로 축소되었다. 불과 13년 사이에 학교의 수가 30% 수준으로 감소하고 말았다(손인수, 1971: 129).

무엇보다 기독교학교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은 개정 규칙 제6조 2항에 나와 있는 교과과정에 성경과목과 종교의식의 금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금지 조항은 기독교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위협에 직면한 기독교학교들은 총독부에 항의를 하면서도 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이 나누어졌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을 비롯한 감리교계통의 학교들은 개정 규칙을 수용하고 정부 인가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을 선택하였다. 그 학교들은 비록 학교에서 성경교육이나 예배의식을 직접 행하지 못해도 기독교인 교사들의 인격적인 지도로 기독교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학교의 존속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⁶⁾ 반면 장로교계 학교들은 종교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학교존립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가져 이 규칙을 거부한 채 스스로 문을 닫거나 상급학교 진학이 되지 않는 잡종(雜種)학교로 남아 졸업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⁷⁾

매우 힘들게 이 시기를 지난 기독교학교는 일제 말기에 다시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교회와 기독교학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신사참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문을 닫으라는 요구였다. 이 문제로 인해 기독교학교들은 다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대응방식은 1915년 사립학교규칙 때와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배재학교를 비롯한 감리교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으로 보다는 국가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학교를 폐교시키는 대신 학교교육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반

6) 종교교육의 금지는 공식적인 교육활동에 한하였고, 학교 외에 다른 건물에서 정규교과시간 외에 하는 종교활동은 허용되었다. 새 규칙에 의해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된 배재학당의 경우 학교건물 외 다른 건물에서 성경반을 설치, 운영하여 종교교육을 유지하였다(정선이, 2009: 85-105).

7) 장로교 학교 가운데서도 함흥의 영생여학교와 영생학교는 1929년, 1931년에 각각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면 장로교 선교회에서는 이상승배가 분명한 신사참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결하여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와 승의여학교 등 많은 기독교학교들이 스스로 학교의 문을 닫았고, 광주 수피아여학교와 숭일학교 및 목포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는 신사참배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교처분을 받았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937년 한 해에만 20여개의 기독교학교가 폐쇄되었다(백승중, 2008: 240). 그리고 경신학교처럼 외국의 선교회로부터 한국인으로 경영자를 바꾸어 학교를 존속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2. 배재학교

미국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는 1885년 한국에 입국하여 동년 8월 3일 이경나, 고영필이라는 두 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6월 8일 고종으로부터 유용한 인재를 배양하는 학교란 뜻의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교명을 하사받았다.⁸⁾ 당시 조선은 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전신, 전기 등 새로운 설비의 도입에 따라 영어 사용가능자가 시급히 필요하였다. 그래서 조선 정부나 학생들은 영어교육을 신속히 받아 관직에 나가 일을 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학생들에게 단순히 영어를 가르쳐 벼슬에 나가는 발판으로 삼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펜젤러가 추구한 배재학당의 교육목적은 성경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따라 ‘참자유자’를 양성하는데 있었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37) 이를 위하여 그는 미국의 기독교 대학처럼 배재학당이 기독교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교양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되기를 원했다.⁹⁾ 그는 일기에 “배재학당은 이 땅에 기독교적 자유교육

8) 교명 하사(下賜)일에 대하여는 1886년 6월 8일설과 1887년 2월 21일 설이 있다. 앞의 주장은 Scranton의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n Mission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5 (1989). p. 259와 현판을 전달한 당시 외아문 통번 김윤식의 일기에 근거하여 『배재백년사』; 손인수(1971)에서 사용되고 있고, 후자는 Appenzeller Diary, 1887.2.21에 근거하여 류방란(1998); 이광린(1989); 한규원(2003)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은 김윤식의 일기내용을 신빙성 있게 봄.

9) 아펜젤러가 배재학당의 교육목적을 정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은 그의 모교인 플랭클린 앤 마샬대학 (Flanklin and Marshall College)인 것 같다. 이 대학은 독일개척교회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학부 대학으로 초기에는 교양교육을 통한 시민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펜젤러는 자신의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교양교육의 가치를 확신하여 배재학당을 자신의 모교와 같은 학교로 만들기를 원했다(류방란, 1998).

을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당이다.”라고 적었다(류방란, 1998: 183).

아펜젤러는 학교교육의 바탕에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이 놓이기를 원했다. 그는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은 20장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26-27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8절)를 좋아하여 학생들이 “도덕적 정신적 자유인”으로 민족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였고, 본인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쳤다. 이 성경말씀을 한문으로 번역한 ‘욕위대자 당위인역(欲爲大者 當爲人役)’을 학당훈으로 삼았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36-37).

『배재백년사』에 나타나는 초기 배재학교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889년도

1) 예비부

1학기- 영어: 독본 1권, 한문, 언문

2학기- 영어: 독본 2권, 철자, 한문, 언문

2) 일반교양부

1학년: 영어 기초문법, 산수 초보, 독본 3권, 4권, 철자, 쓰기 및 노래 부르기, 한문, 언문

2학년: 영문법, 산수 (10진법까지), ‘일반과학’, 독본 5권, 철자, 번역, 쓰기 및 노래 부르기, 한문, 언문

3학년: 영문법, 영작문, 1산수, 한문, 언문, ‘일반과학’, ‘지식의 계통’, 어원학, 미술, 노래 부르기

1908년도

학년시간 과목	교수 시간	1학년	교수 시간	2학년	교수 시간	3학년	교수 시간	4학년
성경	3	인물	2	복음요사	3	성서개론	3	성서개론
국어(독본)	4	독법, 작문	4	독법, 작문	3	독법, 작문	3	독법, 작문
한문	5	독법, 습자	4	독법, 습자	4	독법, 습자, 작문	4	독법, 습자, 작문
역사	2	한국역사	2	동양역사	2	세계역사	2	한국역사

학년시간 과목	교수 시간	1학년	교수 시간	2학년	교수 시간	3학년	교수 시간	4학년
지리	2	한국지리	2	한국지리	2	동양지리	2	세계지리
수학(대수)	2	수학	2	대수	3	대수	3	대수
영어	5	독법, 습자	5	독법, 습자	6	독법, 작문, 습자	6	독법, 작문, 습자
일어	2	독법, 습자	2	독법, 습자	3	독법, 회화	3	독법회화
물리		미상	2	미상	2	미상	2	미상
화학		-		-	2	미상	2	미상
생물	2	식물	2	식물	2	동물	2	동물
음악	1	단음찬가	1	복음찬가	1	복음찬가	1	복음찬가
미술	1	사생화	1	용기화		-		악리
교련(체조)	1	체조	1	교련	1	교련	1	교련
계	30		30		34		34	

1880-90년대 배재학교는 영어교과를 핵심으로 하면서 한문교과와 교양교육을 중요하게 실시하였다. 영어교육은 학생들의 입학목적이기도 하고 조선정부의 위탁사항이기도 하였다. 한문교육은 초기에는 조선의 전통을 존중하여 유학경서를 교육하다가 점차 유학과 한문을 분리하여 한역성서, 교리서 등을 교재로 삼아 한문을 가르쳤다(류방란, 1998). 아펜젤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교육은 교양교육이었다. 그래서 1888년부터 산수, 지식의 계통, 일반과학, 어원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가르쳤다. 1896년에는 서재필이 세계지리와 역사, 정치경제, 교회사 등을 강의하였고, 윤치호가 1897년부터 1898년까지 과학개론과 천문학을 가르쳤다. 이들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68). 1900년대 들어오면서 교과과정이 다양화, 체계화되었고, 특히 역사와 지리가 중요하게 교육되었다. 이들 과목들은 당시 세계의 정세를 알게 하고 민족의식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교과서는 교사들이 주로 영어로 된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나 1896년부터 학당장인 벙커(D.A. Bunker)가 『배재교육총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김봉희, 1992: 69).

배재학교는 학생들의 영어교육과 교양교육에 주력하면서 그 토대가 되는 신앙교육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학교인가를 받을 때 정부에서 종교교육을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종교과목과 예배시간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았다. 대신

정부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아펜젤러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1887년 2명의 학생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889년부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과목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다가 1895년부터 예배 참석을 의무화하였다. 학교 예배는 매일아침 수업 시작 전 9시에 아침예배가 있었고,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예배가 드려졌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48-50). 특히 정부와 영어교육 위탁생 계약이 끝난 1902년부터는 영어교과의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기독교교육을 강화하였다. 교수어를 영어에서 한글로 바꾸고 기독교교리교육의 비중을 높였다. 이러한 학교의 정책변화에 대해 신입생의 수가 줄어들었고, 재학생 가운데서도 반발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수의 감소로 1907년부터 다시 영어를 교수어로 복귀시켰다(류방관, 1998: 182). 그러나 신앙교육에 대한 강조는 지속되었다. 학교에서 강조하는 신앙교육에 대해 신앙이 없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불평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교의 종교적 분위기에 동화되어 곧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교사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학생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더욱 크게 미쳤다고 한다. 이처럼 신앙교육은 성경시간이나 예배시간 뿐 아니라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활동에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기독교적 성격의 것을 채택하거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편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배재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은 교과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학생 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중요한 장이 되기도 하였다. 배재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생회가 조직된 것은 1898년 설립된 배재협성회¹⁰⁾가 시초였다. 협성회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회보를 발간하여 언론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배재협성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된 이후 1910년 기독교청년회의 성격을 띠고 새롭게 조직되었다. 새로 조직된 배재학교의 학생회인 ‘배재학생 기독교청년회’에는 종교부등 4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종교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종교부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

10) 배재협성회의 활동을 이만열은 “한국기독교학교 학생운동의 시작이자 한국근대 학생운동의 기원”으로 평가하고 이는 “사회적 개혁, 새로운 문호의 수용, 민족적 자존에 대한 확고한 입장 이외에도, 봉건적 체제에 대한 민주적 갱신을 촉구하는 정치적 의미까지 내포한 새로운 기풍으로 당시 권력층과 기존 정치질서에 대하여 위협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했다(이만열, 1987: 237; 한규원, 2003: 264에서 재인용).

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학생 전도대를 조직하여 주일마다 서울시내에서 전도를 하며, 8개의 교회들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파송하여 주일학교를 돕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210-212).

초창기 배재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 세 가지를 물으면 삼대학습을 말했다고 한다. 첫째가 예수님을 배운 것이고, 둘째가 영어를 배운 것이고, 셋째가 머리 깎기(상투를 베는 것)를 배운 것이라고 한다.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나 머리를 깎는 것은 모두 전통에 어긋나는 매우 혁신적인 것으로 배재에서 배운 자유의 정신을 소유한 결과라 할 수 있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46).

학교에서 민족교육과 종교교육을 금지한 1915년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에 대해 배재학교는 심각한 고민을 한 끝에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배재고등보통학교 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를 폐교시켜 학생들을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관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기보다는 정규시간 외에라도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다. 실제 배재학교는 고등보통학교로 인가 받은 후 정규 교과목에서는 성경과목이 빠지게 되었지만 방과 후나 저녁에 과외로 원하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예배는 학교가 아닌 가까운 교회에서 드렸다. 그리고 총독부가 유예기간으로 준 1925년까지는 배재고등보통학교와 함께 기존의 배재학당을 병설 운영하였다(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1989: 196-198). 일제가 1930년대 후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배재학교는 학교의 문을 닫는 것보다 형식적으로나마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학교를 유지하여 민족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학교에는 황국신민서사 암송, 신사참배 등으로 고난이 점철되었다.

3. 경신학교

미국 장로회 선교부에 속한 언더우드 목사는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입국하여 1886년 고아원을 창설하여 아이들을 맡아 가르쳤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경신학교가 되었다. 경신학교는 언더우드학당, 예수교학당, 민로아학당, 예수교중학교 등의 이름을 거쳐 1905년 경신(敬信)이라는 학교명을 갖게 되었다.¹¹⁾ 예수교학당 때에 학교의 교육목표

11) 경신이라는 학교의 명칭은 당시 교장이었던 기일이 이창직, 유성준, 김정식 등과 의논하여 '세계사조를 외면한 구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새로운 배움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간증

를 “자기 동족들에게 진리를 간증하게 할 전도사와 교사를 양성한다.”라고 정하여 기독교 사역인 배출을 중요하게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표와 동시에 학생들의 나태성과 타성을 깨우치고 진취적인 기상을 고양시켜 “자아발견과 자유준수의 인간창조”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152-153). 민로아학당 시절에도 학교의 이러한 교육목표는 지속되었고 다만 교육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 학당장 밀러(F.S. Miller)는 “소년들을 가장 유위(有爲)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언문과 성경, 그리고 서양학문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선교본부에 보고하였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164).

이러한 교육목표 하에 1891년에는 이전에 강조하던 영어를 제외하고, 대신 한문과 성경을 주로 가르쳤다. 한문은 천자문, 동문선습, 통감 등을 교재로 사용하였고, 성경은 기포드(D.L. Gifford) 선생의 <한문성서>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892년부터 작문, 필기, 독서, 받아쓰기, 문법, 철자법, 번역 등 한글, 한문, 영어 등의 어문계통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아라비아 숫자를 다룬 산술과 한국학 연구에 중점을 두어 한국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체조 등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159). 1900년에 성경, 교회사, 국어, 한문, 영어, 산술, 대수, 화학, 물리, 천문학, 박물, 지리, 한국사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1908년 중등과의 교과목은 성경, 사서, 동서양역사, 만국지지, 지문학(地文學), 중등생리, 중등물리, 중등화학, 국가학, 부기, 교육사, 작문, 분수지기하초등(分數至幾何初等), 도화, 영일어, 체조 등이었다(한규원, 2003: 66). 1920년대 경신학교의 교과목은 학년에 따라 10-14과목이 개설되었다. 성경은 모든 학년에서 배우도록 하였고, 역사·지리, 국어(일본어), 조선어·한문, 수학, 박물, 이화(물리, 화학), 법제, 영어, 실업, 도서, 체조, 창가, 품행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경신학교는 학교 초창기부터 실업부를 운영하였다. 실업부 운영을 통해 학교의 운영경비를 줄이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자립정신을 기르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였다. 1913년에는 경신학교 수공부(手工部)를 두고 직조과, 염색과, 자수과, 양말과, 재봉과, 죽물과 등 6개 분과를 두어 체계적인 실업교육을 실시하였다(한규원, 2003: 332-334).

경신학교는 신앙교육을 위해 성경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가르쳤다. 1890년대에는

하게 하는 부르기에 좋은 이름'의 원칙에 따라 깨울칠 경(敬)과 새 신(新)을 택해 경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209)

성경 시간에 <한문성서>를 중심으로 <십계명>과 시구로 된 <예수의 생애>등을 가르쳤다. 1902년 예수교중학교 때에는 성경과목이 <그리스도의 생애> <요한복음> <신구약> <로마인서> <에베소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으로 개설되었다. 이러한 성경과목의 교재는 대개 게일(J.S. Gale) 교장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207-208). 그리고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916년부터 교목 혹은 성경교사를 두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게 하였다. 1920년대 초에는 매일 아침 2층 기도실에서 교직원 및 학생 전원이 참석하는 예배를 드렸다. 1926년에는 매주 2시간씩 성경과목을 두어 1학년 누가복음, 2학년 요한복음, 3학년 고린도서, 4학년 잠언, 5학년 로마서 등을 가르쳤다.

경신학교에서 신앙교육은 학교에서의 성경교육이나 예배 뿐 아니라 ‘경신기독교청년회’라는 클럽 활동과 학생회활동 그리고 교회와의 밀접한 관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경신기독교청년회(KS YMCA)는 1910년 YMCA에 근거를 두고 조직되었는데 배재, 상동, 한영 등의 기독교청년회와 함께 연합 토론회와 성경반을 운영하였다. 기독교청년회는 전도 강연, 주일학교 및 하기학교 인도 등의 종교활동과 친교, 교육, 체육활동 등을 하다가 1920년대 이후 사회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는 기독교생 운동으로 변화되어 갔다. 경신학교 학생회는 농촌마을로 전도활동을 다니고 노회 앞에서 전도현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312-323).

마펫(S.A. Moffet)이 학당장으로 있던 예수교학당 시절에는 학교가 일요일에 주일학교가 되었지만, 1901년 경신학교가 재개교 되었을 때는 당시 교장 게일 목사가 초대 담임목사로 있던 연동교회가 경신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당시 연동교회는 경신학교의 “어머니 품안”과 같았다. 경신학교의 교사, 학생, 졸업생들이 연동교회의 성도였고, 지도자였다. 학생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함께 연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연동교회 청년회는 경신학교의 신입생들을 위해 환영회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연동교회는 경신학교에 성경교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경신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의 결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먼저, 민족의 지도자가 된 도산 안창호가 청년 시절 경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과 현대문명과 민주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안창호는 경신학교에서 기독교신앙을 가진 뒤 자신의 스승인 한학자(漢學者) 이석관과 청년 선각자였던 필대은을 전도하기도 하였다.¹²⁾ 이만

12) 1897년 7월1일자 <그리스도신문>에 안창호의 전도에 대한 기사가 났다. “평양 남촌 도롱섬에 이석

열(2002)은 일평생 지속된 도산의 민족 계몽운동은 기독교정신에 토대하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 외에도 경신학교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연동교회 당회록에 따르면 1928년부터 1938년 사이 5회에 걸쳐 세례 및 학습을 실시하였고, 매 회 20여명 정도의 경신학교 학생들이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 및 학습을 받았다고 한다. 1928년에는 졸업생이 24명이었는데 입학당시 비신자였던 14명 중 9명이 신앙인이 되어 졸업하였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326-338).

1915년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따라 성경과목과 예배시간을 교과과정에서 배제하고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를 받도록 요구를 받은 경신학교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다른 많은 사립학교들이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음에 따라 총독부의 압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도 거세어졌다. 학생들은 학교 인가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고등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아 졸업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여 1918년에는 졸업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학교당국은 성경과목과 예배시간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마침내 총독부는 1923년 지정학교라는 제도를 채택하여 경신학교를 “고등보통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성경 및 예배시간을 허락”하는 조선총독부 지정 사립 경신학교로 인가를 내주어 대학 예과 및 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였다(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321).

일제는 1938년 제 3차 조선교육령의 개정 이후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하였다. 기독교학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경신학교의 운영주체였던 미국 북장로교 총회는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고 한국인 경영자를 찾아 인계하기로 하여 1939년 경영권이 미 선교회에서 김홍량, 김원량, 최태영에게 넘겨졌다. 이후 해방까지 경신학교는 성경시간과 예배시간을 공식적으로 갖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관이라는 사람은 본래 집은 가난하나 학문을 힘써 선비라 칭하는 사람이라. 여러번 예수교 전도하는 말을 들으나 종시 믿지 아니 하더니 서울 정동학당(민로야학당)에서 공부하는 안창호라하는 사람이 재작년(1895)에 와서 이석관을 찾아보고 자기가 전에 행하던 바 모든 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신세를 날날이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사 세상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말씀을 자세히 전파하며 진심으로 권하니 이석관이 그 권하는 말을 듣다가 마음이 자연 성령의 감화함을 얻어 제 죄를 회개하고 여러 사람을 진심으로 권하며 회당(교회당)을 설치하고 여러 곳으로 다니며 전도하는데... (중략)”: 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175에서 재인용.

4. 대성학교

대성학교는 평양에서 1908년 개교하여 1913년 폐교한 짧은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학교는 우리나라 근대 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성학교는 당시 민족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가 설립한 학교였다는 점 외에도 지덕체를 겸비하고 민족의식이 투철한 인재를 양성한, 당대 가장 모범적인 학교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평가받고 있다(이광린, 1986). 도산이 대성학교를 설립한 동기는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역사적 자각을 지닌 진실된 인물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성학교의 건학정신을 “집진적으로 대성하는 인물”을 길러내어 민족독립의 중심세력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손인수, 1971). 또한 학교를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 충실하게 운영하여 전국 각지에 이 학교를 모방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랐다. 도산의 이러한 의도대로 많은 학교들이 도산과 대성학교의 영향으로 세워졌다. 대성학교와 함께 서북지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였던 오산학교 역시 이승훈이 도산의 영향으로 세운 학교이고, 조신성이 여학교인 평양진명여학교를 세운 것도 대성학교의 영향이었고, 나중에 이종호가 세운 경성중학교, 의주의 양실학원, 안악의 양산중학 등도 대성학교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대성학교란 이름의 학교들이 전국에 여럿 세워지기도 하였다(박의수, 2010).

대성학교가 기독교학교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대성학교가 외형적으로 기독교학교를 표방하지 않았고, 교과과정 상에 성경과목이나 예배시간을 공식적으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독교학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 설립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산이 평생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그가 대성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기독교학교의 한 모형으로 볼 수도 있다.¹³⁾ 도산은 18세 때 고향인 평안남도 강서를 떠나 공부할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언더우드가 설립한 민로아 학당에서 3년간 공부를 하며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었다. 도산은 후에 경신학교로 발전한 이 학교에서 성경을 기초로 한 근대학문들을 배우며 자기성장의 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경신사

13) 도산의 기독교신앙에 대한 연구로는 이만열(2002)과 최기영(1998)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에는 대성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도산의 제자 전영택과 홍기주의 회상 글에서도 도산의 신앙이 잘 나타나있다(전영택, 1948; 1961; 홍기주, 1933).

편찬위원회, 1991; 이만열, 2002). 이후 도산은 평생 기독교신앙을 토대로 자기희생적인 애국계몽운동을 펼쳐나갔다. 그의 대성학교 제자인 홍기주와 전영택 목사에 따르면, 도산은 기독교의 참된 신자로서 성경을 극히 사랑하고 애독하였으며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한다. “우리 이천만 동포가 모두 손에 신약전서 한권씩을 가지는 날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도산은 말했다(전영택, 1948).

도산은 대성학교를 세운 뒤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독립협회와 대한자강회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기독교계 지도자였던 윤치호를 교장으로 내세웠고, 자신은 대리교장으로 학교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였다. 대성학교에서의 기독교 신앙교육은 표면적인 교육과정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훈화나 대화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도산의 가르침과 인격을 통하여 신앙교육은 이루어졌고, 방과 후 모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신앙교육이 실시되었다.

대성학교의 교육과정은 수신, 국어, 한문, 작문, 역사, 수학, 체조 등 1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의 사립학교인 보성학교, 오산학교, 희문의숙, 융희학교 등의 교육과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사립학교들이 1906년 8월에 발표된 고등학교령에 준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기독교학교에서 볼 수 있는 성경과목은 빠져있다. 1908년 10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학생모집 광고와 함께 소개된 학교의 교과과정에 따르면 교과과정에서는 농·공·상과 같은 실업 과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 졸업생의 회고에 따르면 군사훈련을 받는 체조시간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배웠다고 한다.

도산이 교육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본보기를 통한 교육, 대화를 통한 교육, 노작을 통한 인격교육 등이었다. 도산은 자신이 스스로 인격의 본보기가 되고자 노력했고, 인격적으로 본보기가 되는 학생을 길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대성학교가 우리나라 학교들의 본이 되고자 노력했다. 대성학교 개교식에서 도산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나는 본보기라는 것을 심히 중요시한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천되어 한 본보기로 이루기 전에는 보급력이 생기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위 학교교육에 대한 천연만어보다도 본보기 학교 하나를 길러놓는 것이 요긴하니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모방하려 하는 것이다(박의수, 2010: 99).

도산은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 신입생을 뽑을 때도 직접 면접을 하여 학생

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있게 문답을 계속하는 동안 상대방이 진리를 스스로 깨우치게 하였다. 그런 면에서 도산의 대화법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유사하다고 춘원 이광수는 말하였다(이광수, 1994). 도산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돌담을 쌓는 등 학생들과 함께하는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노동을 통해 근면과 협동정신,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배우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도산의 교육방법들은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수방법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도산이 교육의 목적과 가치로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한 정직과 진실은 기독교윤리의 핵심임을 생각할 때 도산이 실시했던 교육은 기독교정신이 기반이 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산 자신이 젊은 학창시절 학교에서 신앙을 배웠고, 그 신앙이 그의 사상의 기반이 되었기에 그는 대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신앙교육을 지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학교 내에 성경연구회를 두고 매 수요일 오후 방과 후에 모임을 가졌고, 당시 기독교계 애국지도자였던 전덕기 목사와 게일, 푸트(Foote) 선교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기독교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도록 장려하기도 하고, 불신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도산 자신이 직접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홍기주, 1933). 대성학교의 제자이었던 전영택(1948)은 도산이 가끔 성경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마태 5:6)라는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옳은 일에 용기 있게 나갈 것을 촉구하던 말씀을 회상했다.

도산은 조국을 사랑하여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는 것이라 믿고 애국을 실천하는 삶을 자신이 먼저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대성학교는 “애국자의 정신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애국애족하는 정신으로 충만”하였다. 당시 대성학교의 교사였던 서병호(1965)는 “대성학교의 학생이나 교사는 모두 피끓는 지사의 품모가 있어 평양성내는 물론이요 전국민의 숭양하는 관역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대성학교는 도산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똘똘 뭉친 민족을 향한 배움의 공동체였다. 학생들 뿐 아니라 교직원들 모두 도산의 영향을 받아 지사적 의지와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 전영택은 대성학교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선생들은 도산을 중심 삼아 모두 동지요 한 가족이었다. 틈이 있으면 학생을 심방하고 같이 산보도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던 일도 기억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주변을 시켜서 결석하는 학생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나도 병으로 누웠을 때 선생님과 학생의 심방을 받아서 기뻐던 기억이 난다(전영택, 1965).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평가받으며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던 대성학교가 5년이라는 짧은 역사로 마감하게 된 이유는 애국계몽의 영향력이 컸던 대성학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1909년 이또히로부미가 순종과 함께 지방순시를 할 때 일장기를 집에 걸고 환영하러 나오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대성학교 학생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도산이 배후세력으로 지목되어 연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대성학교를 폐교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의 압제에 도산이 미국으로 떠나고 105인 사건으로 교사들이 다수 감옥에 연행된 후 1913년 학교는 어쩔 수없이 문을 닫게 되었다.

5. 오산학교

남강 이승훈은 도산 안창호의 영향을 받아 1907년 평안남도 정주에서 학생 7명을 데리고 오산학교를 개교하였다. 그런데 오산학교의 개교는 남강이 주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신민회나 서우·서북학회 같은 민족운동 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남강이 오산학교를 세운 목적은 민족운동에 이바지할 인재를 기르고, 백성을 교육시키는 선생을 양성하는데 있었다. 남강은 개교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중략) 총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긴요한 일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일이다. (중략) 내가 오늘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진들을 가르쳐 만분의 일이나마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그가 오산학교를 통해 기르고자 한 인제는 “글만 많이 읽고 태도가 도도하고 손이 약한 선비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실제로 손에 비를 들고 깡이를 잡는 자”라고 하였다(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80). 그는 또 종종 “우리는 일본 사람을 인격적으로 눌러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말하였다. 남강의

이러한 교육관을 토대로 하여 초창기 오산학교는 다음의 세 가지 건학이념을 가졌다. 첫째는 교육구국이다.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길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학교의 목적으로 삼았다. 둘째는 ‘밝고 덕스럽고 힘 있는 사람’이 오산학교가 키우고자하는 인물상이었다. 셋째는 전인교육이다. 오산학교의 교훈인 사랑(愛), 정성(誠), 존경(敬)의 성품을 지닌 사람을 키우기 위해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인교육을 시켰다(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33-34).

초창기 학교의 교과목으로는 수신, 역사, 지리, 영어, 산수, 대수, 헌법대의, 물리, 천문학, 생물, 광물, 창가, 체조, 훈련 등의 과목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교사들이 과목을 선택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남강이 신앙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성경을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성경수업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가졌던 교과는 영어, 역사, 지리 시간이었다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체조와 군사훈련을 열심히 시켰다. 남강을 비롯하여 초대교장 백이행과 초창기 교사들 여준, 서진순, 박기준 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교한지 불과 2년 만에 오산학교는 1909년 8월 11일자 『황성신문』으로부터 “평북일대에서 교육정도가 제일”이라는 평판을 얻기에 이르렀다(조현욱, 2002: 56).

민족정신의 고양과 함께 오산학교 교육의 주지(主旨)가 된 것은 기독교정신이었다. 남강이 1910년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오산학교는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었다. 오산학교에는 결출한 신앙인인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다석 유영모 같은 이들이 초창기 학교의 지도자로 있었고, 이들에 의해 오산학교에는 기독교 신앙이 탄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1910년 초 오산학교에 부임한 청년 교사 유영모는 신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수업 시작 때에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기도를 하자고 독려를 하기도 하였다. 남강이 기독교신앙을 갖기 전부터도 그는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남강 역시 청년 교사 유영모의 신앙 열심과 그에 의해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다(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63). 다석 유영모는 오산학교에 제일 먼저 신앙의 씨를 뿌린 사람이었다.

세 차례나 오산학교의 교장을 역임했던 고당 조만식 역시 철저한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 정신의 인물로서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고당은 종종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내용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수신(修身) 강의였다. 고당의 가르침을 받은 김홍일의 회고에 따르면 고당은 민족주의 사상과 신앙을 결부하여 가르

쳤다고 한다. 다음은 고당이 수업시간 가르쳤던 내용의 일부이다.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눈물과 땀과 피가 항상 넘쳐 흘러야합니다. 눈물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훈훈한 인정이며, 땀은 생존보다 나은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중략) 피는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어떤 일에도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략)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74).

남강이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신앙집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신앙모임은 점차 발전하여 교직원과 학생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석하는 마을 교회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학생들이 주민들과 함께 교회당을 건축하여 오산학교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남강은 오산학교에 신앙의 터를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선교사인 라부열 목사를 3대 교장으로 초빙하였다. 그는 오산학교를 더욱 분명한 기독교학교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남강은 오산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오산지역을 기독교적 이상촌으로 만들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백승중, 2008). 그래서 학교가 있는 용동마을과 오산지역의 생활터전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주민들과 함께 동회를 만들어 마을을 청결하게 하고 조합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일에 함께 한 당시 오산학교 교사였던 춘원 이광수는 마을의 달라진 모습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동네 전체가 예수교인 것과 또 이 동회로 하여 이 동네는 이웃 다른 동네와는 판관인 동네가 되었다. 술과 노름이 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어느 동네에나 흔히 보는 이웃끼리의 싸움도 없었고 집과 옷들도 다 깨끗하게 되어서 헌병들이 청결검사도 아니 들어오게 되었다. 이 동네에는 실로 경찰이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한규무, 2008: 74).

오산학교의 신앙에 토대한 철저한 민족교육은 신실한 애국적 신앙인들을 배출하였다. 신앙으로 일체의 신사참배 강요에 즐기차게 항거하다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 평생을 겸손한 신앙과 인격으로 영락교회를 일구어 하나님과 민족을 섬긴 한경직 목사, 기독교사상가와 역사가로 한국의 역사에 독특한 영향을 끼친 함석헌 선생 등이 모두 오산학교의 교육으로 형성된 신앙인들이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 목적대로 졸업생 가운데 다수가 백성들을 깨우치는 학교의 선생이 되었다.

고등보통학교로의 인가문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오산학교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고등보통학교의 규정을 따르는 것은 명백히 오산학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입학 자격이 없는 잡종학교로 남는다면 학생들이 오지 않을 것은 뻔한 노릇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립학교들이 이미 인가를 받은 뒤인 1925년 남강은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란 생각으로 인가 신청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인가받는 것을 반대하자 남강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학교의 인가를 고집하였다.

합방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자와 지사들이 큰 뜻을 품고 해외로 나갔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실효가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 증명되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안을 지키고 안에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을 빼고 안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안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적의 채찍 아래서 그 채찍을 물리칠 힘을 길러야한다(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204).

총독부는 오산학교의 인가 조건으로 고당을 교장에서 사임하도록 요구했지만,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어쩔 수없이 고당을 교장으로 둔 채 1926년 오산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시켰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강화되는 황민화정책 하에 오산학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해야 했고,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등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식민지 교육정책에 오산학교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일제말기의 어두운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6. 신앙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

앞에서 초기 기독교학교들 가운데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배재, 경신학교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운 대성, 오산학교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 네 학교가 보여준 신앙교육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지니고 있었다. 먼저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학교인 배재학교와 경신학교는 신앙교육을 가장 중시하면서 더불어 민주주의 정신을 지닌 교양인 양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한국인들이 세운 학교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신앙을 토대로 한 민족교육을 강조하여 민족주의 정신

을 중요시 하였다. 그래서 이들 학교들 사이에는 신앙과 애국심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배재나 경신학교는 신앙을 우선시한 반면 대성이나 오산학교는 애국심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이다.¹⁴⁾

둘째, 배재와 경신학교에서는 성경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었고, 정규적인 채플시간과 교목이 있었고, 기독교학생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종교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오산이나 대성학교에서는 공식적인 교과과정보다는 교과외 활동을 통해 신앙이 학생들에게 교육되었다. 특히 도산, 남강, 고당 같은 걸출한 신앙적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강력한 신앙적 영향을 끼쳤다.

셋째, 미션학교 내에서도 감리교 계통의 배재학교와 장로교 계통의 경신학교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복음 전도인 양성을 학교의 중요한 사명으로 본 경신은 성경교육과 예배를 금지한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폐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반면, 기독교적 교양인 양성을 학교의 사명으로 본 배재는 종교교육의 금지나 신사참배 등과 같은 종교탄압에 대한 저항보다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학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네 기독교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배재, 경신, 대성, 오산학교에서 가르친 신앙은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전부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 민족과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친 것이다. 이처럼 신앙을 폭넓게 이해하였기에 신앙을 교육하는 것도 성경과목 시간이나 예배시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음악, 체육 등의 교과수업시간에도 이루어졌고, 학생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과 같은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심이 투철한 교원들과 학생들의 만남을 통해 신앙이 학생들에게 전승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믿음의 스승을 통해 배운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었다. 도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

14) 오산학교와 선교사가 세운 평양의 숭실전문학교를 다닌 한경직의 말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오산학교에서 배운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 애국심, 둘째, 신앙심, 셋째, 학문이었어요. 숭실대학에 오니 그 순서가 달라요. 먼저, 신앙심, 둘째가 애국심, 그리고 학문의 순서였는데”라고 말하였다(오산백년사 편찬위원회, 2007).

이 되는 것은 실천적 사랑의 생활을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져서 조국 땅에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당시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의 본질이었다(이만열, 2002).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신앙교육은 각 학교들의 설립이념의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들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민족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합한 신앙교육의 추구는 당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다. 기독교학교들이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시 사람들은 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학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되었다. 당시 우리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소수였지만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 있었던 데는¹⁵⁾ 기독교학교의 기여가 컸다고 할 수 있다.¹⁶⁾ 당시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이었던 서재필, 윤치호, 이승훈, 안창호, 김구, 이승만, 조만식, 이상재, 전덕기 등 대부분이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을 배웠거나 가르친 이들이다. 이처럼 기독교학교는 신앙교육을 통해 신앙과 민족정신이 통합된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당시 우리사회가 요구한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IV. 결론

오늘날 우리사회가 기독교학교에 기대하는 바는 초기 기독교학교 당시와는 물론 다르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업을 기독교학교가 수행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15) 1919년 기독교인은 20만 여명으로 당시 인구의 1.3%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제 초창기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신민회를 결성한 대다수 사람들과 105인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 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독립협회의 지도층 인사들도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3·1운동을 주도했던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이만열, 2003: 115-147).

16) 한국의 독립운동을 서술한 매켄지(F.A. McKenzie)는 한국기독교인들의 항일정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기 전에 많은 수의 한국인이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 미션계학교에서는 잔다이크 햄프턴 및 조오지 워싱턴 같은 자유의 투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근대사를 가르쳤다.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선동적인 서적인 성경을 보급하고 또 가르쳤다. 성경에 젖어든 한 민족이 학정에 접하게 될 때는 그 민족이 절멸라든가, 아니면 학정이 그쳐지든가 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일어나게 된다.”(McKenzie, 1969: 7; 이만열, 2003: 126에서 재인용).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시대적 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의 위기와 관계한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신앙과 사회적 책무성이 통합된 신앙교육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학교들은 분명 정체성의 위기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극복의 대상이 된다. 더구나 본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독교학교의 역사에서 우리는 통합된 신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선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에 길을 물으며 기독교학교의 방향을 찾아간다면 회복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학교의 역사로부터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교육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반성이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신앙교육은 당연히 시대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관계해야 한다. 한말 기독교가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학교가 사회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민족과 사회에 대한 헌신적 삶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학교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앙교육이 개인적, 종교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감당하도록 그 폭이 넓어져야 한다.

둘째, 신앙교육의 방법에 대한 반성이다. 초기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은 교육과정상의 종교교육 뿐 아니라 학교의 전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신앙에 투철한 교원들의 영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과정을 잘 갖추는 것과 더불어 신앙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충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교장의 신앙적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도산과 남강의 예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오늘날 학생 인권보호의 강화로 기독교학교에서 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신앙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앙적 분위기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발과 헌신적인 교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학교의 다양성에 대한 성찰이다. 초기 기독교학교에는 설립이념과 성격에서 다양한 모형이 존재했다. 복음전도자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교과를 체계

적으로 교육하는 기독교학교, 신앙에 토대한 자유교양인 양성을 목표로 신앙과 관련된 교양교육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기독교학교, 당대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앙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신앙과 세상의 지식을 교육하는 기독교학교 등이 있었다. 기독교학교는 학교의 설립정신에 따라 다양한 교육목표와 내용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할 수도 있고,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도 있다. 다만 기독교학교는 하나님나라의 구현이라는 기독교신앙의 방향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학생 전도를 중시하는 미션스쿨과 기독교세계관적 가르침을 중시하는 기독교대안학교가 배타적으로 자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에게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학교가 내외적 난관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다.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같은 대외적 어려움에 대해 기독교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배재, 경신, 대성, 오산학교는 각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일체의 탄압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대성학교처럼 학교의 문을 닫으면서까지 불의한 억압에 저항할 수도 있고, 배재나 오산학교처럼 부당한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도 학교를 유지함으로써 신앙교육을 지속하는 것을 중시할 수도 있고, 경신학교처럼 한 단계 낮은 법적 지위를 감수하면서도 부당한 규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 역시 내외적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동시에 현재의 규제가 신앙교육을 막는다고 생각한다면 일부의 기독교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안학교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택 (2011).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방안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27집. 193-216.
- 경신사편찬위원회 (1991). 『경신사: 1885-1991』.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 기독교학교협의회 (2007). 『기독교학교교육 6집: 기독교학교교육의 정체성 재정립』.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_____ (2009). 『기독교학교교육 7집: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학교교육탐색』.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봉희 (1992). “한국개화기 기독교학교 교과서의 서지학적 연구.” 『도서관학』. 23. 63-105.
- 류방란 (2000). “개화기 신식학교 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에 관한 논의.” 『한국교육』. 27(1). 49-74.
- _____ (1998).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사학연구』, 8집. 161-200.
- 박상진 (2007). “어떻게 하여야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전해갈 수 있는가?.” 『기독교학교교육』. 6집. 28-47.
- 박의수 (2010). 『도산 안창호의 생애와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9). 『배재백년사: 1885-1985』. 서울: 학교법인 배재학당.
- 백승중 (2008). 『그 나라의 역사와 말』. 홍성: 그물코.
- 서병호 (1965.4). “대성학교의 교사시절을 회상함.” 『기러기』.
- 손원영 (2010).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연구』. 32. 211-230.
- 손인수 (1971).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숭실대학교구십년사편찬위원회 (1987). 『숭실대학교 90년사』. 서울: 숭실대학교.
- 안창호 (2000). 『도산 안창호 전집』. 제13권. 서울: 도산안창호선생 기념사업회.
- 오산백년사편찬위원회 (2007). 『오산백년사: 1907-2007』. 서울: 학교법인 오산학원.
- 이광린 (1986). “구한말 평양의 대성학교.” 『동아연구』. 10. 89-118.
- _____ (1989). 『개화파와 개화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 이광수 (1994). 『도산안창호』. 서울: 우신사.
- 이만열 (1987).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_____ (2002). “도산 안창호와 기독교 신앙.” 『한국근현대사연구』. 22. 46-87.
- _____ (2003).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18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5-147.

- 임희국 (2007).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설립.”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편.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
- 전영택 (1948.3). “안도산 선생을 생각함.” 『새사람』.
- _____ (1961.3.11). “안도산 선생.” 『크리스찬』.
- _____ (1965.4). “대성학교 학생시절의 추억.” 『기러기』.
- 정선이 (2009). “1920년대 기독교계 고등교육의 특성-승실과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9(2). 85-105.
- 정재걸 (1990). “한국근대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연구』, 2·3집. 103-120.
- 조현욱 (2002). “오산학교와 서북학회정주지회.” 『문명연지』. 3(1). 37-62.
- 최기영 (1998). “도산 안창호의 기독교신앙.” 『도산사상연구 5』. 도산사상연구회.
- 한규무 (2008). 『기독교민족운동의 영원한 지도자 이승훈』. 서울: 역사공간.
- 한규원 (2003). 『한국기독교학교의 민족교육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홍기주 (1933.1.2). “안도산의 교장시대.” 『동광』.
- McKenzie, F.A. (1969). *Korea's Fight for Freedom*. Seoul: Yonsei Univ. Press.
- Scranton, M.F. (1989).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n Mission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aith Education at Early Christian Schools – Based on Paichai, Kyungshin, Daesung, and Osan school –

Young Taek Kang (Woos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help for today's Christian Schools to re-establish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ols through examining faith education at early Christian Schools in Korea. To this end, among Christian Schools built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y, each two schools founded by foreign missionaries and Korean leaders have been selected and examined. This study found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related to faith education at these four schools. The faith taught at Paichai, Kyungshin, Daesung, and Osan Schools was not confined to religious area, such as worship and prayer, but rather associated to the whole of life. The students learned at the schools that faith should result in dedication to the service for society and nation. The faith education mainly occurred at Bible time and worship services, in addition at extracurricular activities like student government activities. Especially students learned faith from the teachers who were deeply dedicated to Christianity.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se Christian Schools. Paichai and Kyungshin Schools built by missionaries emphasized faith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tried to nurture the men of culture with the spirit of democracy. On the other side, Daesung and Osan Schools built by Korean leaders emphasized the education of nationalism based on Christianity and tried to nurture the men with the spirit of nationalism. Finally, some implications to today's Christian Schools have been suggested.

Key Words: Christian schools, faith education, Paichai school, Kyungshin school, Daesung school, Osan school

